

K-water 나눔복지재단으로 댐 주변 지역 전문복지 제공



1 봉사활동을 하는
수자원공사 임직원
2 학교 창의력 수업에
참여한 직원



댐 주변 지역은 외진 곳에 있고, 댐 건설로 인한 인구 유출, 지역경제 침체, 각종 행위규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여건이다. 댐 주변 지역의 노인 인구는 전국 평균 15.48%의 1.7배인 26.3%이며,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19.2%로 매우 취약하다.

한국수자원공사는 1990년부터 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 등을 위한 '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'을 통해 국민행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 현재 다목적댐, 용수댐 등 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27개 댐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.

▲ 소득증대사업(공동영농시설 운영 등) ▲ 생활기반조성사업(마을회관 건설 등) ▲ 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(둘레길 조성 등) ▲ 주민생활지원사업(난방비·전기료 보조 등) ▲ 육영사업(장학금 지급 등) ▲ 기타지원사업(지역행사지원 등)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. 특히 대청댐에서는 댐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가스보일러 설치, 소외계층 가정의 집 구조 개선 활동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.

2019년 6월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댐 주변 지역 환경을 고려해

댐 주변 취약계층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'K-water 나눔복지재단'을 설립했다.

이 재단은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댐 주변 지역 특성을 감안, 형식적 생계지원에서 탈피해 어르신들의 문화·여가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했다.

고령화로 복지에 공백이 생긴 댐 주변에 재원 지원·단순 봉사 수준의 소모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전문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9개 효나눔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.

한국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공공부문 사회적 책임 이행의 모범적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, 사회복지법인 'K-water 나눔복지재단'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. ●